

제23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는 '93년 1회 회의(일본 기타큐슈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양국 지역간 산업협력 발판을 마련
- 23년간 한국 1,145명, 일본 1,483명 합계 2,628명이 참가

- 1) 목적 : 한·일(큐슈) 지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확대
 - 한국과 일본 큐슈(九州)지역의 동일 업종간·지역간 교류협력을 통해 자본·기술·인재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고,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
- 2) 테마 : 한·일(큐슈) 의료산업의 협력과 미래
~ 의공학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한일 협력 창출 ~
- 2) 일시 : '16. 10.12(수)~10.14(금), * 본회의 : 10.12(수), 상담회 : 10.13(목)
- 3) 장소 : 일본 후쿠오카현 노가미프레지던트호텔, 서일본종합전시장
- 4) 참석자 : 양국 정부대표(韓 산업부, 日 큐슈경제산업국)·기업 등 총 99명
 - 한국측 : 산업통상자원부, 후쿠오카총영사관, 인천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일경제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국대학교, 헬스케어 관련기업 등 46명(본회의 46명, 상담 16개사)
 - 일본측 : 큐슈경제산업국, 가고시마·후쿠오카현, 이이즈카시, 큐슈경제연합회, 큐슈경제조사협회, 큐슈공업대학, 큐슈일한경제교류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JETRO 서울사무소, 기업 관계자 등 53명(본회의 53명, 상담 19개사)

2. 주요 성과

<회의>

- ☐ 한일 양국이 동시에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방안 제시
- ☐ 지역 의료산업 클러스터 홍보 및 상호 협력방안 소개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수성의료지구

<상담회>

- ☐ 일본 헬스케어 산업관련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으로 일본시장 진출에 기여
 - 한국 16개사, 일본 19개사 총 35개사 59건 상담실시(상담금액 146만달러)
 - * 2015년 한·큐슈 무역액은 9,836억엔으로 한·일 무역액(8조2,270억엔)의 12%차지

1) 한일 양국이 동시에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방안 제안

기관·기업명	내용
주제 1 : 한일 의공학 제휴	
동국대학교	한국 의료기기산업 현황과 국제협력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료기기 R&D 동향(ICT융합진단 치료기기, 생체대체소재, 헬스케어앱), R&D 국제협력 사례(한국-싱가포르 R&D국제협력 지원) 및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소개(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 대학·기업·연구소 등 외부기술·지식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타츠다(광섬유 응용기술), 니프로(투석치료 바늘감지기술) - 고독사방지 안심케어 서비스, 인체분해 골절합용나사 개발 제안
이이즈카시	이이즈카시의 의공학 제휴 대처사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이즈카의 강점(대학의 집적, 연구기관·인프라 집적, 벤처기업 배출), 의공학 제휴 잠재력(의료시설, 연구자·연구기관, 산업), 이이즈카 기업의 개발 사례(의료현장 니즈, 대학아이디어)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전용 트레이, 구급카트, 복강경수술 봉합기기, 응급환자용 모바일 원격의료지원 시스템, 혈류화상화 기술 등
주제 2 : 한일 헬스케어산업 제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간 헬스의료 산업의 협력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과 바이오시밀러(복제의약품) 제휴, 의료기기클러스터 활용 R&D협력과 요양·재활의료기기 제휴 (원주·오송·대구경북의료기기클러스터와 일본 동큐슈메디칼밸리 간 협력)
(주)트루밸런스	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체험형 건강의학교실사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모델도시 창출을 위한 체험형 건강의학교실 운영 (건강유지 : 의학, 영양학, 운동학, 정신학+숙제) - 가고시마현 미나미사츠마시(인구: 4만, 고령화율: 36%) : 건강증진·도시활성화, 경제적으로도 의료비 적정화 실현(연간 약 6억엔)

- 여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수명을 늘리는 초고령사회 대처가 중요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일 협력 필요
 - * 건강수명 모델, 재택간호요양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
- 한일 간 헬스의료산업에 대한 협력 잠재력이 크며, 의료클러스터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의료기기R&D협력·의료기기 인증관련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 추진
 - *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와 일본 동부큐슈메디컬밸리 협력

- 일본기업의 정밀가공기술·제조기술의 강점과 한국의 ICT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여 제3의 비즈니스 발굴에 협력
- * 고독사 방지 안심케어 서비스, 혈관확장 기술 등

2) 지역 의료산업 클러스터 홍보 및 한일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 제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국제 공동연구 개발을 통한 의료기기 분야 한일 조인트 벤처 설립
- 해외시장 진출 상호 지원
-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과 한국의 의료중견 기업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대구 수성의료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적·물적 의료 인프라 구축
- 양·한방 진료 가능한 한국의 3대 도시

3) 일본의 헬스케어 산업 관련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으로 일본 시장 개척에 기여

- 한국 16개사, 일본 19개사 총 35개사 59건 상담실시(상담금액 146만달러)

<샘플 발주 상담 성립 기업>

- 정밀기기 관련 금형분야 : 솔텍
- 노인용 의료기기 분야 : 켄텍, 헬쓰썩크릿
- 생활형 소비재(척추 교정용 쿠션) : 미요

<상품 견적의뢰>

- 플라즈마 이온 발생기 : Godo T&I

NO	한국기업명	일본기업명	상담금액	성약금액	비고
1	B.G.B Korea	Kinki Medical	100,000	-	
2	Gemtech	Sawayaka Club	12,000	1,200	샘플발주 상담성립
3	Godo T&I	Ongane Japan	30,000	미정	상품 견적의뢰
4	Health Seek Create	Seki Furniture	25,000	2,500	샘플발주 상담성립
5	H.N.E	Kodama Healthy Food	5,000	-	
		Ecolife	1,000	-	

NO	한국기업명	일본기업명	상담금액	성약금액	비고
6	I-On	Seki Furniture	3,000	-	
7	Miyo	Seki Furniture	2,500	250	샘플발주 상담성립
8	SKE	Seki Furniture	300,000	-	
		Toyota Motor Kyushu	100,000	-	
		N.F.T	200,000	-	
9	Soltech	Tokai Seigyo	600,000	60,000	샘플발주 상담성립
		Toyota Motor Kyushu	50,000	-	
		N.F.T	45,000	-	
10	Tecsen	Nishio Nihon Kaigo Service	10,000	-	
11	Unible	Sawayaka Club	8,000	-	
총 계			1,461,500	63,950	

4)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상황별 대처 사례 및 요양시설 운영 노하우 공유

- 기업 현장에서의 대처사례 : 항공사 및 호텔에서의 고령자, 응급환자 대응
- 요양시설 운영 : 요양시설에서의 인사 매니지먼트, 시설 내에서의 음식 개혁, 치매케어 전문가의 확보 및 활용 시책

5) 산업시찰을 통해 선진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련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선메디렉 이이즈카 : 주상복합형 종합메디컬센터로 인구집중효과와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입주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의사회가 협력하여 설립
- 큐슈공업대학 : 自走式 초소형 내시경 개발(불편함을 해소·개선, 수요맞춤형 기기)에 대한 소개와 시연으로 선진 의료기기에 대한 현황 확인
- 가호극장 : 이이즈카시의 관광인바운드 정책으로 성공시킨 사례로, 쇠락한 가부키양식의 극장을 관광상품화 하여 지역 명물로 육성
- 이이즈카 오토레이스 : 시의 자원확보를 위해 오토레이스를 유치하여, 그 수입으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한국야스카와전기 로봇 마을 :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최첨단 산업시설 시찰

3. 종합평가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이후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향후 50년도 지역 간 협력·산업 간 융합으로 한일이 공동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회의가 되었음
 - 한일 공통의 과제인 고령화 사회, 인구감소, 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우수 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상호 협력방안 모색하고, 한국 지역의 의료 클러스터 홍보
- 지난 23년간 총 2,628명이 참가(한국 1,145명, 일본 1,483명)에 이르는 지자체·경제단체·기업 관계자 등이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하여 다양한 채널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1993년 대비 양국 무역규모가 약 2.7배 성장하는데 기여
 - (교역규모) '93년 6,259억엔 → '15년 1조 6,459억엔(큐슈경제권, 모지세관)
- 큐슈 지역경제는 일본 경제 전체에서 10% 전후를 차지하여 일본의 '1할 경제'라 불리며 큐슈의 역내 생산액은 타이완(세계28위)과 오스트리아(세계29위)와 비슷한 경제규모로, 양국의 인적·물적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공동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파트너 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함

4. 향후 후속조치 사항

- 2017년 차기 제24회 회의는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제16회 환황해회의와 동시 개최
 - 한일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미나+상담회 프로그램 유지
 -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관련 기업 방문 및 참가지자체·기업 PR 실시 (홍보물, 샘플 전시 등)
 - 한·일 기업의 교류희망 수요조사,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상품교역, 투자, 기술협력, 제3국 협력, 연수, 인재교류 등

〈참고1〉 앙케이트 조사 결과

가. 회의 앙케이트 조사 결과(28명 응답/46명 참가)

문1) 회의 참가 목적(복수응답 가능)

1.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22	45%
2. 비즈니스 찬스 모색	14	29%
3. 시장정보 교환	1	2%
4. 양국 지자체간 협력사업 개발	10	20%
5. 기타(투자유치 활동, 경제교류 동향 파악 등)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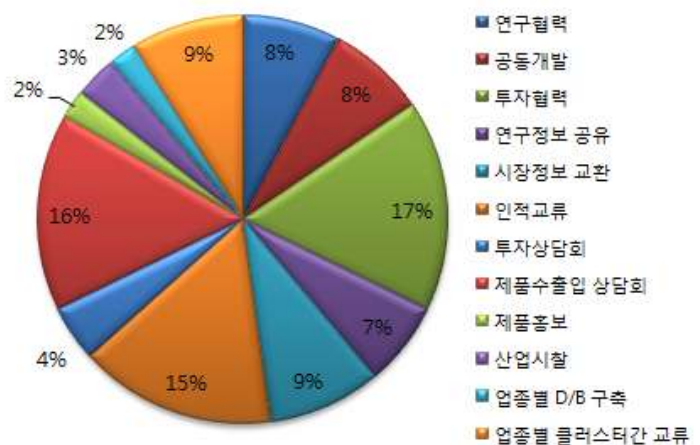
문2) 기대하는 회의 성과(복수응답 가능)

1. 네트워크·파트너십 구축	21	30%
2. 투자 유치·홍보	7	10%
3. 사업홍보	10	14%
4. 교류협력 강화	10	14%
5. 신산업에 대한 정보습득	11	16%
6. 미래전략 수립	10	14%
7. 기타	0	0%



문3) 한일 간 경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복수응답 가능)

1. 연구협력	7	8%
2. 공동개발	7	8%
3. 투자협력	15	17%
4. 연구정보 공유	6	7%
5. 제품홍보	8	9%
6. 인적교류	14	16%
7. 투자상담회	4	4%
8. 제품수출입 상담회	14	16%
9. 시장정보교환	2	2%
10. 산업시찰	3	3%
11. 업종별 D/B구축	2	2%
12. 업종별 클러스터간 교류	8	9%



문4) 전체 회의 발표 내용 유익도

1. 매우 유익	9	32%
2. 유익	17	61%
3. 보통	2	7%
4. 유익하지 않았음	0	0%



■ 가장 유익했던 내용은?

- 동국대학교 발표내용
- 이이즈카시 의사회 프레젠테이션
- 큐슈공업대학 캡슐장비 리포트
- 헬스케어 신산업 정보
- 의료기기관련 분석된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정책 및 사례소개
- 고령화 사회에 따른 야마시타 사장의 연구발표
- 일본 상황 설명
- 일본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설명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연구위원의 한일간 헬스의료산업 협력 가능성에 대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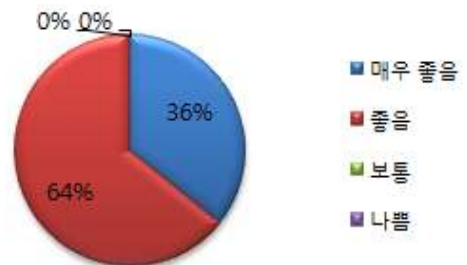
문5) 산업시찰 프로그램 유익도

1. 매우 유익	9	36%
2. 유익	15	60%
3. 보통	1	4%
4. 유익하지 않았음	0	0%



문6) 제2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1. 매우 좋았다	10	36%
2. 좋았다	18	64%
3. 보통이다	0	0%
4. 나빴다	0	0%



문7) 회의에 대한 의견 및 개선점

- 테마에 맞는 클러스터,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서 회의를 실시했다면, 공감대 더 클 것임
- 각 발표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이해와 질문이 어려움
- 일본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면 좋겠음
- 보다 많은 양국 지자체가 참여하여 의견 교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되길 희망함
- 시찰지 선정에 있어, 여러 곳을 짧은 시간에 돌기보다 한두곳을 심층적으로 보기를 바람
- 전반적으로 훌륭했음. 일본 실버산업의 현재 또는 투자되고 있는 미래의 산업에 대한 사례

시간을 좀더 많이 갖기를 희망함

-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심도있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개선, 문제점에 대한 토의가 되길 바람
- 추후의 결과나 진행 공유가 중요(연속성)
- 상담업체 사전발굴에 좀더 힘을 기울여 주기를 희망함
- 당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나. 상담회 앙케이트 조사 결과

(단위 : 달러)

구분	한국측	일본측	상담건수	상담금액	성약가능 추정금액
의료 및 영양보호, 건강 관련 상담회	16개사	19개사	59	\$1,461,500	\$63,950

■ 상담결과 평가

- 대단히 만족 8명 (68%)
- 만족 2명 (16%)
- 보통 2명 (16%)
- 만족하지 않음 0명 (0%)

■ 비즈니스 연결형태(복수응답 가능)

- 상담회에서 얻은 연고의 유지 및 발전 7명 (33%)
- 일본시장 조사 1명 (5%)
- 방일하여 상품의 판매촉진 10명 (47%)
- 일본의 바이어를 공장에 초대 2명 (10%)
- 일본에서의 전시회 등에 참가 1명 (5%)

■ 상담회 준비

- 매우 좋음 10명 (84%)
- 좋음 2명 (16%)
- 보통 0명 (0%)
- 나쁨 0명 (0%)

■ 상담회 통역

- 매우 좋음 5명 (42%)
- 좋음 5명 (42%)
- 보통 2명 (16%)
- 나쁨 0명 (0%)

■ 상담회 사전 어렌지

- 매우 좋음 7명 (59%)
- 좋음 2명 (16%)
- 보통 3명 (25%)
- 나쁨 0명 (0%)

■ 상담회 재참가 여부

- 참가 12명(100%)
- 불참 0명 (0%)

〈참고2〉 한·일(규슈) 경제교류회의 보도자료



한·일 경제교류회의 개최..."헬스케어 협력 강화"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 일본 후쿠오카(福岡)현에서 규슈(九州) 지역과의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규슈) 경제교류회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한·일 경제교류회의는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과 경제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1993년 일본을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여는 행사다.

올해 회의에서는 '한일 의료산업의 협력과 미래'를 주제로 양국의 헬스케어 산업 현황과 제휴 사례, 앞으로의 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또 의료·헬스케어 분야 한·일 기업 간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고 서일본 최대 규모의 환경 비즈니스 전시회인 '에코테크노 2016'에 우리 기업이 환경 관련 우수 제품을 출품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un@yna.co.kr

송고시간 | 2016/10/11 11:00

산업부, 일본서 23회 한·일 경제교류회의 개최

승인 2016-10-12 14:28:39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제23회 한-일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는 이민철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을 단장으로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인천광역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한일경제협회, KOTRA,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무역협회와 기업 등 총 48명이 참가한다.

일본 측에서는 다카하시 나오토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후쿠오카현, 가고시마현, 이이즈카시 등 지자체,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규슈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 총 50여 명이 참석한다.

한-일 경제교류회의는 지난 1993년 일본에서 개최된 1회의 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일 경제교류회의에서는 '한일 의료산업의 협력과 미래'라는 테마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한일 양국의 헬스 케어 산업 현황과 제휴 사례 및 향후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의료 관련 클러스터를 소개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의료·헬스케어 분야 한일 양국 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며, 서일본 최대 규모의 환경 비즈니스 전시회인 '에코테크노 2016'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 관련 국내 기업 우수 제품을 출품해 다각도로 일본 수출 확대할 전망이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머니투데이

韓-日 경제교류회의 개최...의료분야 협력강화 12~13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개최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 입력 : 2016.10.11 11:04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일본 큐슈지역과의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제23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민철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을 단장으로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인천광역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한일경제협회, KOTRA,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무역협회와 기업 등 총 48명이 참가한다.

일본측에서는 다카하시 나오토(高橋 直人)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후쿠오카현, 가고시마현, 이이즈카시 등 지자체,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큐슈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 총 50여명이 참가한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한일 의료산업의 협력과 미래'라는 테마로 고령화시대에 대응해 한일 양국의 헬스케어 산업 현황과 제휴 사례 및 향후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국의 의료관련 클러스터를 소개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을 실시한다.

의료·헬스케어 분야 한일 양국 기업들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한다. 서일본 최대 규모의 환경 비즈니스 전시회인 '에코테크노 2016'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 관련 우수 제품을 출품해 대일본 수출 확대를 전개한다.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양국 경제협력 채널 구축 및 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아주경제

한·일,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강화...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 시장 확대 기대

송종호 기자(sunshine@ajunews.com) | 등록 : 2016-10-11 15:25 | 수정 : 2016-10-11 15:25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일본 규슈지역과의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제23회 한·일(규슈)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단장으로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인천광역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한일경제협회, KOTRA,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무역협회와 기업 등 총 48명이 참가한다.

총 50명이 참가하는 일본 측에서는 다카하시 나오토(高橋 直人)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후쿠오카현, 가고시마현, 이이즈카시 등 지자체,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규슈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 등이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한·일 경제교류회의는 지난 1993년 1회 회의(일본 기타큐슈 개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양국간 다양한 협력사업이 발굴되어 양국 경제협력 채널 구축 및 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의료산업의 협력과 미래’라는 테마로 고령화시대에 대응해, 한일 양국의 헬스 케어 산업 현황과 제휴 사례 및 향후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의료관련 클러스터를 소개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의료·헬스케어 분야 한일 양국 기업들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며, 서일본 최대 규모의 환경 비즈니스 전시회인 ‘에코테크노 2016’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관련 국내기업 우수 제품을 출품해 다각도로 일본 시장 확대를 전개한다.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 및 헬스케어 협력 강화

- 제23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10.12~13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10월 12일(수),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일본 큐슈 지역과의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제23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측에서는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단장으로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인천광역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한일경제협회, KOTRA,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무역협회와 기업 등 총 48명이 참가하며,

○ 일본측에서는 다카하시 나오토 (高橋 直人)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후쿠오카현, 가고시마현, 이이즈카시 등 지자체,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큐슈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 총 50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는 지난 '93년 1회 회의(일본 기타큐슈에서 개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한·일간 다양한 협력사업이 발굴되어 양국 경제협력 채널 구축 및 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